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교사자격증(教師資格證) 필기(筆記) 시험(試驗)이 어떻게 될까?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弟子)가 내게 제공(提供)해 준 사례(事例)이다. 어떤 사람이 교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應試)하여 합격(合格)할 수 있을지 점(占)쳤다.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계묘일(癸卯日) 무오시(戊午時) (순공(旬空): 진사(辰巳))에,
산풍고(山風蠱)가 감위수(坎爲水)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癸卯日 戊午時

八卦

山風蠱(巽木宮) 之 坎爲水(坎水宮)

世 父 戊子	白 兄 丙寅	才 應 伏 兄 辛卯
馬災花	地德亡	花乙將
財 戊戌	蛇 父 丙子	伏 孫 辛巳 空
閏蓋天	馬災德花	帳亡乙馬
官 戊申	勾 財 丙戌	伏 財 辛未
馬花劫	閏蓋德天	閏花鞍蓋
應 孫 戊午	朱 官 辛酉	才 世 伏 官 辛酉
帳將害	害鬼馬災	害鬼馬災
財 戊辰 空	青 父 辛亥	伏 父 辛亥
閏馬月花鞍	花劫喜地	花劫喜地
兄 戊寅	玄 財 辛丑	伏 財 辛丑
地亡	閏天馬月	閏天馬月

六沖卦

歸魂卦

卦身: 兄寅

空亡: 辰巳

世身: 四爻

결과(結果)는 한 과목(科目)은 떨어졌고, 한 과목은 붙었다. 자월(子月)에 보충(補充) 시험(試驗)을 쳤다. 왜일까?

이것은 부모(父母)로 용신(用神)을 삼는데, 부모가 양현(兩現)했으니, 두 과목의 시험을 주(主)한다. 부모 해수(亥水)는 청룡(靑龍)에 치(值)했는데, 비록 월(月)이 극(剋)하고 일(日)이 방부(幫扶)하지 않으나, 월(月)과 동궁(同宮)하고 청룡에 임(臨)하니 길(吉)이 되는데, 부모 자수(子水)는 월이 극하고, 회두극(回頭剋)으로 동화(動化)했기 때문에, 한 과목은 통과(通過)하지 못했다.

육효(六爻) 인목(寅木)이 발동(發動)하여 부모 자수로 화했는데, 육효는 마지막이 되니, 뒤에 자월에 보충 시험을 친 것이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教师资格证笔试如何？（王虎应写）

这是徒弟提供给我的案例。某人占教师资格证考试能不能通过？于癸卯年壬戌月癸卯日戊午时（旬空：辰巳），得山风蛊之坎为水。

白虎	兄弟寅木○应	父母子水
螣蛇	子孙巳火	父母子水× 妻财戌土
勾陈		妻财戌土”
朱雀	官鬼酉金○世	子孙午火
青龙		父母亥水’
玄武		妻财丑土”

结果一门挂了，一门过了。子月补考。为什么？

此以父母为用神，父母两现，主两门考试。父母亥水值青龙，虽然月克日不帮扶，但与月建同宫，临青龙为吉，而父母子水月克，动化回头克，故有一门没有过。六爻寅木发动化父母子水，六爻为最后，后子月补考。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제3장(第三章) 문을 닫고 서책(書冊)을 파고들며, 백가(百家)를 널리 섭렵(涉獵)하여 의리(義理)를 탐구(探究)하다

공성(共城)에 정착(定着)한 지 수년(數年)이 흘러, 소옹(邵雍)은 나이(年歲)가 차츰 들며 소년(少年)에서 청년(青年)으로 들어서니 체구(體軀)가 우뚝 솟고 정신(精神)이 맑으며 마음이 안정(安定)되어, 심성(心性)이 또래 사람들에 비교(比較)하면 더욱 고요하고 속이 깊고 영민(英敏)하였다. 그 시절(時節)에 그는 이미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유가(儒家)의 정통(正統) 전적(典籍)을 통독(通讀)하였고, 역대(歷代)의 역사책(歷史冊)과 치란(治亂)의 연혁(沿革)에 숙달(熟達)하여, 보통(普通)의 선비가 10여 년(餘年)을 온 힘을 다해야 겨우 익힐 수 있는 경학(經學)의 뿌리를 그는 이미 마음속에 완전(完全)히 익혀 입만 열면 바로 문장(文章)을 이루었다. 만약(萬若) 평범(平凡)한 학생(學生)이었다면 여기에 이르러 마땅히 과거(科擧)에 투신(投身)하여功名(功名)을 취(取)하고, 조정(朝廷)에 입신(立身)하여 가문(家門)을 빛냈을 것이다. 그러나 소옹은 유가의 경전이 대부분 인간(人間) 세상(世上)의 기강(紀綱)과 상도(常道), 나라를 다스리는 윤리(倫理)를 말할 뿐, 천지(天地)의 본원(本源)과 음양(陰陽)의 변화(變化), 만물(萬物)의 생멸(生滅)을 다루는 지극(至極)한 대도(大道)에 언급(言及)함에 있어서 는 아직 부족(不足)함이 있음을 깊이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문을 닫고 깊이 연구(研究)하기로 결심(決心)하여, 백가의 학문을 다하고자 문벌(門閥)의 편견(偏見)을 깨뜨리고 수많은 책을 널리 섭렵하며 의리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고금(古今)을 관통(貫通) 하고 천지(天地)와 인간의 관계를 꿰뚫어 보고자 구(求)했다.

그 무렵 공성(共城)의 문풍(文風)은 순박(純朴)하여, 비록 천하에 이름을 떨치는 큰 선비나 거물(巨物)은 없었으나 도리어 세가(世家)에서 오래도록 소장(所藏)하던 책이나 민간(民間)의 고본(孤本)이 적지 않게 감추어져 있었다. 북송(北宋) 초년(初年)에 문교(文教)가 크게 흥(興)하여 태조(太祖), 태종(太宗), 진종(眞宗)의 3조(三朝)를 거치며 쌓인 결과(結果), 천하의 전적이 점차(漸次) 회복(回復)되어 민간에 흩어져 있던 제자잡가(諸子雜家), 음양술수(陰陽術數), 천문(天文) 역법(曆法), 황로도가(黃老道家)의 책들이 많이 보존(保存)되어 있었다. 소옹(邵雍)은 학문을 다스림에 있어 한곳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 유학(儒學)만을 홀로 존중(尊重)하면 인간 세상의 예법(禮法)에 구속(拘束)되기 쉬워 천지의 깊은 틀을 엿보기 어렵고, 오직 여러 장점(長點)을 널리 포용(包容)하고 함께 안아 넓게 채택(採擇)해야만 융회관통(融會貫通)하여 스스로 큰 격국(格局)을 이룰 수 있음을 깊이 알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규칙(規則)을 세워 온종일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謝絕)하였으며, 이웃들과 어울려 노는 일이나 세속(世俗)의 응접(應接)을 일체(一切) 거절(拒絶)하고 모든 심신(心神)을 서책(書冊) 사이에 가라앉혀 밤낮으로 쉬지 않는 책 읽기에 힘쓰던 세월을 시작(始作)했다.

소씨(邵氏) 집안의 초가집은 누추(陋醜)하여 화려(華麗)한 서재(書齋)도 없고 보배로운 책의 비장(秘藏)도 없었으니, 모든 서책은 소옹이 사방(四方)으로 분주(奔走)히 다니며 여기저기서 빌려와 손수 베껴 쓴 것들이었다. 사방 100리 안에서, 단지 향신(鄉紳) 세가나 옛 선비, 은사(隱士)의 집안에 책을 소장한 자가 있으면 그는 반드시 문에 이르러 빌리기를 구했는데, 겸손(謙遜)하고 공경(恭敬)하며 예의(禮儀)가 바르고 성실(誠實)하게 가르침을 구하고 결코 재능(才能)을 믿고 오만(傲慢)하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게 행동(行動)하지 않았다. 빌려온 전적은 대부분(大部分) 파손(破損)되고 이지러져 글자가 모호(模糊)했으므로, 그는 곧 밤을 새워 베껴 써서 보충(補充)하고 한 글자 한 구절(句節)을 세밀(細密)하게 대조(對照)하여 교정(校正)했으니, 전적의 완전(完全)함을 보존(保存)하면서도 스스로의 기억(記憶)을 깊게 했다. 매번(每番) 책 한 권을 빌려 돌아오면 밤낮으로 통독(通讀)하고 일진일퇴(一進一退)하며 헤아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정수(精髓)를 모조리 이해(理解)하고는 다시 책 주인(主人)에게 돌려주었으며 단 한 번도 지연(遲延)시키거나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다. 고을의 모든 사람이 그의 지극한 정성(精誠)과 배움을 좋아하는 모습에 감동(感動)하여, 누구나 그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으니,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소옹은 공성에 보존된 모든 전적을 두루 섭렵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학문 다스림은 평범(平凡)한 선비들이 죽어라 외우기만 하거나 글자마다 자구(字句)를 훈고(訓詁)하는 것과 달라, 중요(重要)한 점은 의리를 탐구하고 본원을 찾으며 같고 다를 것을 분별(分別)하는 데 있었다. 유가를 읽을 때는 인의예지(仁義禮智)와 심성(心性)을 닦는 학문에 깊이 힘써 성현(聖賢)이 세상에 선 마음을 체득(體得)했고, 도가(道家)를 읽을 때는 청정무위(淸靜無爲)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참구(參究)하여 천지가 움직여 변화(變化)하는 순서(順序)를 꿰뚫어 보았다. 음양잡가를 읽을 때는 음양의 소장(消長)과 오행(五行)의 생극(生剋) 변화를 세밀(細密)히 탐구하여 만물(萬物)이 운행(運行)하는 규칙(規則)을 정리(整理)했고, 천문역법을 읽을 때는 일월(日月)과 성신(星辰), 사계절(四季節)의 흐름이 치러지는 도수(度數)를 추산(推算)하여 천도(天道)가 운행(運行)하는 준칙(準則)을 명백(明白)히 했다. 병가(兵家)와 종횡(縱橫)의 글을 읽을 때는 세상일의 기변(機變)과 흥쇠(興衰), 취사(取捨)의 도리를 통찰(洞察)하여 인간 세상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이치를 통달(通達)했다. 제자백가(諸子百家)와 삼교구류(三教九流)를 막론(幕論)하고 무릇 대도에 유익(有益)하며 진리(眞理)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면 그가 마음을 잠그고 연구하여 세밀하게 깨닫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낮에는 집안이 가난하여 소고가 농사(農事)를 지어 나날을 보내며 집안 살림을 유지(維持)했으므로, 소옹은 곧 초가집 창가에 조용히 앉아 책상(冊床)에 엎드려 서책을 파고들며 글자마다 미루어 생각하고 구절(句節)마다 사색(思索)에 잠겼다. 시골의 초가집은 누추하여 바람과 비를 가리지 못했으니, 봄날에 모래 먼지가 창(窓)을 뚫고 들어와 책장(冊張) 위에 떨어지면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계속(繼續) 연구하여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다. 여름에는 매서운 햇살이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이 무덥고 찌는 듯하여 땀이 흘러 등줄기를 적시고 옷을 적셨으나, 그는 여전(如前)히 바르게 앉아 움직이지 않고 서책의 의리 속에 잠겨 더위가 견디기 어려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가을에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낙엽(落葉)이 날려 온 방안에 맑은 추위가 가득했으나, 그는 등불을 켜고 비주(批註)를 달며 배운 바의 맥락(脈絡)을 정리(整理)했다. 겨울에는 차가운 서리가 땅에 덮이고 찬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손발이 얼어붙었으나, 그는 곧 손을 비비고 입김을 불어가며 계속 베껴 쓰고 추리(推理)하여 단 하루도 게을리하거나 황폐(荒廢)하게 버려두지 않았다.

밤이 깊어 주변(周邊)이 고요해질 때,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시골 이웃들이 이미 편안(便安)히 잠들었으나 오직 소씨 집안의 초가집 등불만은 항상(恒常) 밝아 있었다. 한 자루의 청등(靑燈)과 한 권(卷)의 고서(古書)가 바로 그가 깊은 밤에 서로 만나는 모든 풍경(風景)이었다. 긴 밤이 아득하였으나 그는 단지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더욱 사변(思辨)을 중(重)히 여겨, 매번 한 학파(學派)의 전적을 읽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고 나면 곧 조용히 앉아 깊이 생각하며 각 학설(學說)의 같고 다름을 비교(比較)하고 의리의 맥락을 정리하여 참과 거짓, 얻음과 잃음을 분별했다. 유가는 세상에 들어가 몸을 닦음을 중히 여기고, 도가는 세상에서 나가 도에 순응(順應)함을 중히 여기며, 음양가는 수리(數理)의 추리를 중히 여기고, 법가(法家)는 규칙과 법도(法度)를 중히 여기니, 각각의 입론(立論)이 다르고 치중(置重)하는 바가 일치(一致)하지 않아 겉보기에는 서로 상반(相反)되는 듯하나 실상(實狀)은 모두 대도의 한 모퉁이일 뿐이었다. 소옹이 낮과 밤으로 헤아려 점차(漸次) 깨달은 것은, 천지의 대도에는 본래(本來) 문벌이 없으니 학문을 다스림에 결코 편착됨을 경계(警戒)해야 하며, 오직 겸용(兼用)하여 함께 안고 그 정수(精髓)를 취하며 그 찌꺼기를 버려야만 백 개(百個)의 냇물을 모아 스스로 강해(江海)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였다.

수년(數年) 동안 서책(書冊)을 파고드니, 소옹(邵雍)은 전통적(傳統的)인 선비들이 학문을 다스리던 한계(限界)를 철저(徹底)히 돌파(突破)했다. 그 시절(時節) 천하의 선 비들은 대부분 과거(科擧)의 교재(教材)를 엄격(嚴格)히 고수(固守)하여 오직 공맹(孔孟)의 유학만을 높이고 제자(弟子)의 잡학(雜學)을 이단이나 잔재주로 여겨 연구(研究)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했으니, 이로 인해 학식(學識)이 좁아지고 그릇(格局)이 웅졸(臃拙)해져 단지 문장(文章)과 자구, 예법(禮法)의 딱딱한 규칙만을 알 뿐 천지(天地)의 운행(運行)하고 변화(變化)하는 기틀과 세상일의 본원(本源)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소옹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유교(儒敎)를 뿌리로 삼고 백가(百家)를 용(用)으로 삼아, 천인(天人)을 융합(融合)하고 고금(古今)을 소통(疏通)하며 음양(陰陽)을 합(合)하니 학식이 더욱 넓고 깊어졌다. 그는 단지 경서와 역사, 문장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더욱 천문(天文), 지리(地理), 음양오행, 역법(曆法) 산수(算數), 인사(人事)의 흥쇠를 깊이 알아, 가슴속 깊은 내공(內功)은 이미 평범하게 학식이 가득한 선비를 훨씬 뛰어넘어 멀리 앞서 있었다.

서책을 파고들다 실 때에 소옹은 여전히 어릴 때의 습관(習慣)을 이어가서 서재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항상 새벽과 저녁 무렵에 교외(郊外)를 거닐며 천지의 만상(萬象)을 관찰(觀察)하여 책 속의 의리(義理)를 가져와 증명(證明)했다. 봄날에는 풀과 나무가 싹을 틔우는 것을 보고 생생불식(生生不息)의 도리를 깨달았고, 여름 날에는 뇌우(雷雨)가 못을 뒤흔드는 것을 보고 음양이 서로 감응(感應)하는 이치를 깨달았다. 가을날에는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성쇠(盛衰)가 가고 오는 왕복(往復)의 법칙을 깨달았으며, 겨울날에는 만물이 엎드려 숨는 것을 보고 고요히 기르고 기틀을 감추는 신묘(神妙)함을 깨달았다. 책에서 얻은 것은 종이 위의 의리요, 천지에서 본 것은 실제(實際) 풍경의 대도(大道)이니, 두 가지가 서로 증명하고 서로 보완(補完)하여 그가 배운 바를 더는 텅 비고 굳어 있게 하지 않고 더욱 생생하고 통달하게 하여 땅에 떨어져 마음에 들어오게 했다.

날로 쌓이고 달로 깊어지는 넓은 안목(眼目)과 사변(思辨)은 소옹(邵雍)의 마음속에 점차 의혹(疑惑)을 낳게 했다. 그는 백가를 두루 섭렵하고 의리(義理)를 깊이 탐구(探究)하여, 비록 천지에 음양(陰陽)이 있고 사계절(四季節)에 순서가 있으며 만물에 흥쇠가 있음을 알았으나, 천도(天道)와 인사를 관통하고 만물의 변화 법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완전(完全)하고 통일(統一)된 체계(體系)가 시종(始終) 부족함을 느꼈다. 각 학파(學派)의 학설(學說)은 저마다 한 가닥만을 고집(固執)하고 있어, 조각난 의리와 흩어진 규율로는 시종 완전한 천지의 대도(大道)를 꿰어 이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닫고 서책(書冊)을 파고드는 것이 비록 학식을 쌓고 안목을 넓힐 수는 있으나 결국 책의 한계에 갇히는 일일 뿐이며, 만약 이름난 스승의 가르침과 참된 전수(傳授)를 받아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단지 널리 듣고 잘 기억하는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수준(水準)에 머물 뿐 굴레를 깨뜨려 대도의 본원(本源)에 직접 도달(到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더욱 분명(分明)히 알게 되었다.

이때의 소옹은 나이 바야흐로 20세(二十歲)였으니 이미 학문이 백가를 꿰뚫고 가슴에 깊은 내공을 감추었으나, 젊은 나이에 이름을 이루었어도 교만(驕慢)하거나 조금(躁急)하지 않았고 학식이 가득 차 있어도 여전히 겸손(謙遜)하고 순수(純粹)했다. 공성 현지(現地)의 관원(官員)과 향신(鄉紳), 명사(名士)들은 시골에 이와 같은 세상에 드문 기재(奇才)가 숨어 있어 젊은 나이에 박학(博學)하고 심성(心性)이 담박(淡泊)하며 뜻이 높아 세상의 평범한 학생들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젊은 인재(人材)가 이미 세속(世俗)의 학식에 만족(滿足)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시선(視線)이 이미 책과 산하(山河), 인간 세상의 흥쇠를 넘어 깊고 신묘하며 넓고 끝이 없는 천지의 궁극적(窮極)인 대도를 향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수년(數年) 동안 문을 닫고 이치를 탐구하며 천 권의 시서(詩書)가 침전(沈澱)하여 쌓인 것은, 소옹(邵雍)을 위해 넓고 견고(堅固)한 학식의 틀을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스스로의 한계를 똑똑히 보게 해 주었다. 널리 배우고 난 뒤에야 대도가 넓고 큼을 알았고,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야 도를 깨닫는 것이 어려움을 알았다. 이에 청년 소옹의 마음속에는 남모르게 새로운 지향(志向)이 우뚝 섰으니, 다시는 서재를 고수하여 서책을 파고드는 데만 정진하지 않고 시기(時期)가 성숙(成熟)하기를 기다려 곧 산하를 밟고 이름난 스승을 두루 방문(訪問)하여 역학(易學)의 참된 전수를 찾아 천인(天人)의 수리를 관통함으로써, 일생을 마칠 때까지 천지의 지극한 이치를 깨닫고 만세(萬世)의 대도를 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책을 가리지 않는 독서와 오랜 침전은 모두 디딤돌이었고, 그의 넓은 섭렵과 깊은 탐구는 모두 도를 깨닫기 위한 힘의 축적이었으니, 그의 일생을 바꾸고 천 년(千年) 성리학(性理學)의 큰 그릇을 뒤흔들 기연(機緣)이 이미 멀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중이다.

第三章 闭门苦读，博览百家究义理

定居共城数年，邵雍年岁渐长，自少年步入青年，身形挺拔，神清气定，心性较之同龄人愈发沉静通透。彼时他已通读四书五经、儒家正统典籍，熟稔历代史书、治乱沿革，寻常儒生穷尽十数年方能习得的经学根底，他早已烂熟于心、脱口成章。若是寻常学子，至此已然足以投身科举、博取功名，立身朝堂、光耀门楣。可邵雍深知，儒家经典多言人世纲常、治国伦理，论及天地本源、阴阳变幻、万物生灭的终极大道，尚有缺憾。于是他决意闭门深造，穷尽百家之学，打破门户之见，广览群书、深究义理，以求贯通古今、洞彻天人。

彼时共城文风淳朴，虽无名动天下的鸿儒巨擘，却藏有不少世家旧藏、民间孤本。北宋初年，文教大兴，历经太祖、太宗、真宗三朝积累，天下典籍渐次复苏，散落民间的诸子杂家、阴阳术数、天文历法、黄老道家之书，多有留存。邵雍深知，治学不可狭隘偏执，独尊儒术则易拘泥于人世礼法，难窥天地玄机，唯有兼收并蓄、博采众长，方能融会贯通、自成格局。自此，他立下规矩，终日闭门谢客，谢绝一切邻里嬉游、世俗应酬，将全部心神沉于书卷之中，开启了昼夜不辍的苦读岁月。邵家茅屋简陋，无华美书斋，无珍籍典藏，所有书卷皆是邵雍四处奔走、四处借阅、亲手抄录所得。方圆百里之内，但凡乡绅世家、旧儒隐士家中有藏书者，他必登门求借，谦恭有礼，诚恳求教，从不恃才傲物。借来的典籍多有残破缺损、字迹模糊，他便连夜抄写补全，一字一句细细校对，既保典籍完整，又能加深记忆。往往一书借归，昼夜通读，日夜揣摩，不出数日便尽数吃透精髓，再归还书主，从未有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半点拖延怠慢。乡中众人皆感其至诚好学，无不乐于借书予他，久而久之，邵雍得以遍览共城所有留存典籍。

他的治学，不同于寻常儒生的死记硬背、逐字训诂，重在**究义理、探本源、辨异同**。读儒家，则深耕仁义礼智、心性修身之学，体悟圣贤立世之心；读道家，则参悟清静无为、道法自然之理，洞悉天地运化之序；读阴阳杂家，则细究阴阳消长、五行生克之变，梳理万物运行规律；读天文历法，则推算日月星辰、四时岁序流转之度，明晰天道运行准则；读兵家纵横，则洞察世事机变、兴衰取舍之道，通晓人世进退之理。诸子百家，三教九流，凡有益大道、可悟真理之书，他无不潜心研读，细细参悟。

白日家中清贫，邵古耕作度日，维系家用，邵雍便静坐茅屋窗前，伏案苦读，字字推敲、句句思索。乡间茅屋简陋，不蔽风雨，春日沙尘穿窗，落在书页之上，他拂去尘埃继续研读，目不斜视、心无旁骛；夏日烈日穿户，屋内闷热熏蒸，汗流浹背浸透衣衫，他依旧端坐不动，沉浸书卷义理之中，浑然不觉酷暑难耐；秋日秋风萧瑟，落叶飘飞，满屋清寒，他挑灯批注，梳理所学脉络；冬日寒霜覆地，冷风穿隙而入，手足僵冻，他便搓手呵气，继续抄录推演，从未有一日懈怠荒废。

夜深人静之时，万籁俱寂，乡邻皆已安睡，唯有邵家茅屋灯火常明。一盏青灯，一卷古书，便是他深夜相伴的全部光景。长夜漫漫，他不止读书，更重思辨，每每读完一派典籍，便会静坐沉思，对比各家学说的异同，梳理义理的脉络，辨析真伪得失。儒家重入世修身，道家重出世顺道，阴阳家重数理推演，法家重规矩法度，各家立论不同、侧重不一，看似相悖，实则皆为大道一隅。邵雍日夜揣摩，渐渐悟得：天地大道本无门户，治学切忌偏执，唯有兼容并包、取其精华、去其糟粕，方能汇聚百川、自成江海。

数年闭门苦读，邵雍彻底突破了传统儒生的治学局限。彼时天下儒生，大多恪守科举教材，唯孔孟儒学是尊，视诸子杂学为旁门小道，不屑研习，以致学识狭隘、格局局促，只懂文章辞藻、礼法教条，不懂天地运化、世事本源。而邵雍跳出藩篱，以儒为根、以百家为用，融天人、通古今、合阴阳，学识愈发浩瀚渊博。他不仅精通经史文章，更深谙天文地理、阴阳五行、历法算数、人事兴衰，胸中丘壑早已远超寻常饱学之士。

苦读之余，邵雍依旧延续年少习惯，不困于书斋，常于晨昏时分漫步郊野，观天地万象印证书中义理。春日观草木抽芽，悟生生不息之道；夏日观雷雨震泽，悟阴阳交感之理；秋日观叶落归根，悟盛衰往复之律；冬日观万物蛰伏，悟静养藏机之妙。书本所得为纸上义理，天地所见为实景大道，二者相互印证、相辅相成，让他所学不再空洞僵硬，愈发鲜活通透、落地入心。

日积月累的博览与思辨，让邵雍心中渐渐生出困惑。他遍览百家，深究义理，虽知天地有阴阳、四时有序、万物有兴衰，却始终缺少一套完整统一的体系，能够贯通天道与人世、统一万物变化规律。各家学说各执一端，碎片化的义理、零散的规律，始终无法串联成完整的天地大道。他愈发清晰地明白，闭门苦读虽能积淀学识、开阔眼界，却终究囿于书本局限，若无名师点拨、真传悟道，便只能停留在博闻强识的层面，难以突破桎梏、直达大道本源。

此时的邵雍，年方二十，已然学贯百家、胸藏丘壑，年少成名却不骄不躁，满腹经纶却依旧谦逊纯粹。共城当地官吏、乡绅、名士，皆知乡野之间藏着这般一位旷世奇才，年少博学、心性淡泊、志向高远，远超世间凡俗学子。可无人知晓，这位青年才俊早已不满足于世俗学识，他的目光早已越过书本、越过山河、越过人世兴衰，望向了幽深玄妙、浩瀚无垠的天地终极大道。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数年闭门究理，千卷诗书沉淀，为邵雍搭建起浩瀚扎实的学识框架，也让他看清了自身的局限。博学之后方知大道浩瀚，深思之后方知悟道艰难。于是，青年邵雍心中悄然立下新的志向：不再固守书斋苦读，待时机成熟，便踏遍山河、遍访名师，寻觅易学真传，贯通天人数理，终其一生，悟天地至理，传万世大道。他的苦读沉淀，皆是铺垫；他的博览深究，皆为悟道蓄力，一场改变他一生、影响千年理学格局的机缘，已然在不远处悄然等候。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18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여덟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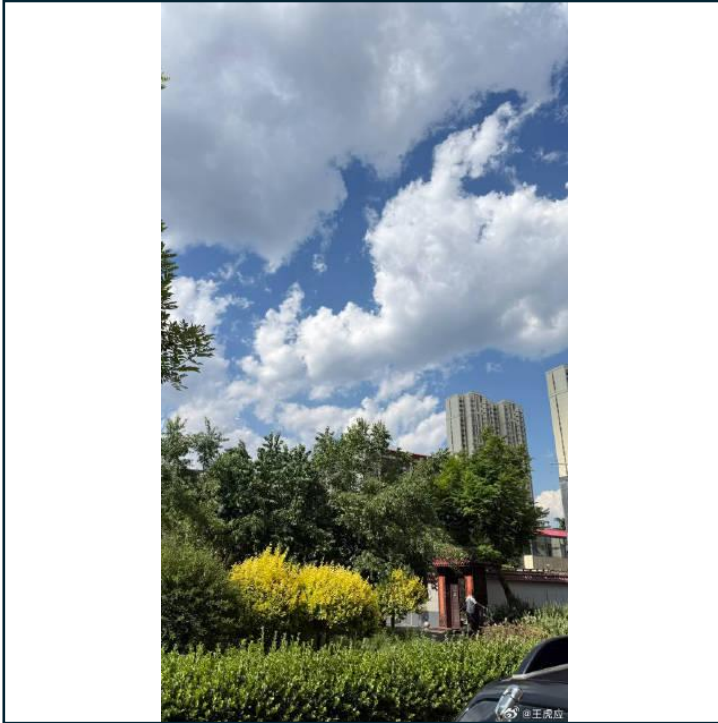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连载之十八。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3일 웨이보 공개)



여름날의 구름
(夏天的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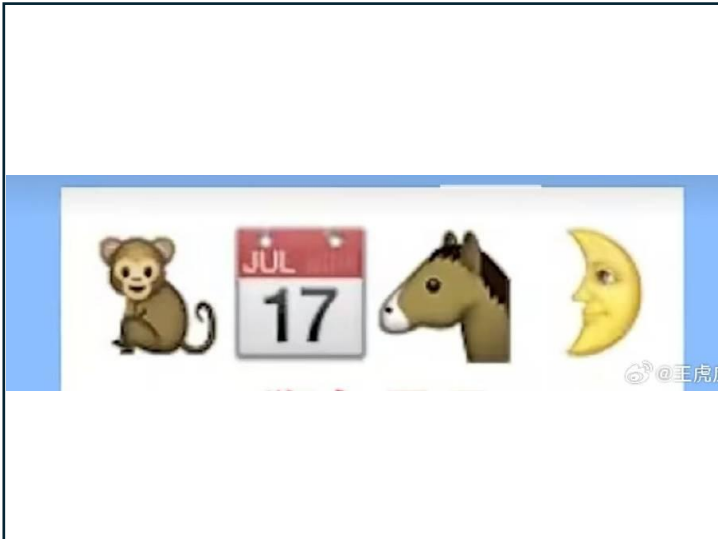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용(인스타: sangjun2495) (용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